

LG생활건강, 파스퇴르 인수 무산위기

한국야쿠르트와 인수협상 결렬 ... 500억-600억원 요구에 견해 차이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파스퇴르유업 인수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9월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파스퇴르유업 대주주인 한국야쿠르트와 인수협상을 벌여왔으나 인수가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창립된 파스퇴르유업은 2004년 500억원대에 한국야쿠르트로 넘어갔으나 경영부진으로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한국야쿠르트는 음료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LG생활건강에 500억-600억원을 요구했으나 LG생활건강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으나 LG생활건강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7>